

# 이웃도 몰랐던 **물레발명**이야기 **「물레」**의 낱지 않는 영필, 구구칠 김민재

우리의 한글시절 영필작가의 비서로움을 읽어주었던 것은 사문다.



이런을 영필의 불편함을 한방에 날려버린 사람은 과연 어떻게 독창하게 되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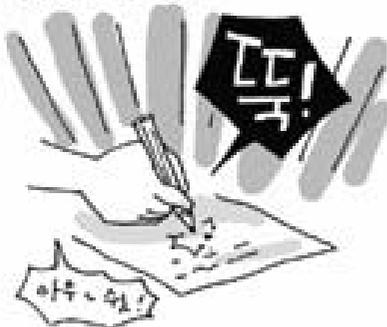


1970년대 초 때만의 물레라는 청년은 발명에 무척이나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대장간 일을 돕느라 발명할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밤이면 발명작업이 몰두하였는데 그가 라디오를 기록하는 아버지와 영구과필만도 16절지 20여장에 달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면 어느날...



그는 연필이 부러지는 연필심에 대해 강한 불만을 쏟아내었다.



그러다가 문득 그의 뇌리를 스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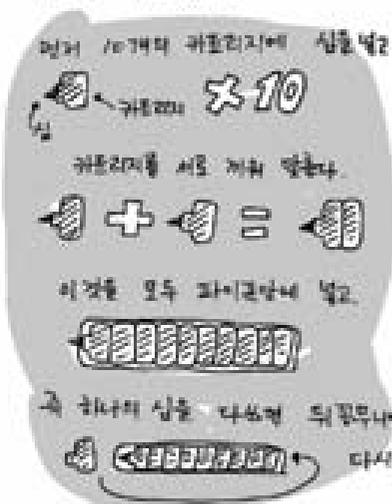
머릿동안 구상을 해보았지만 미묘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가운데...



던 다시 불현듯 그의 뇌리를 스친 생각! (발명가들에게 불현듯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무척이나 많다)



그가 구상한 '깎지 않는 연필'의 원리는 이러하였다.



홍려는 72년에 이 연필을 특허로 등록한후 대우중지의 문구회사와 계약 한후 김복이 되었고 이 연필은 승승장구 끝에 오늘날의 '사핀'로 탄생 하게 되었다.

